

## 기도

1. 생명의 빛을 얻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나눔

1. 당신은 죄에 매여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2. 당신은 말씀으로 정죄하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생명의 빛을 얻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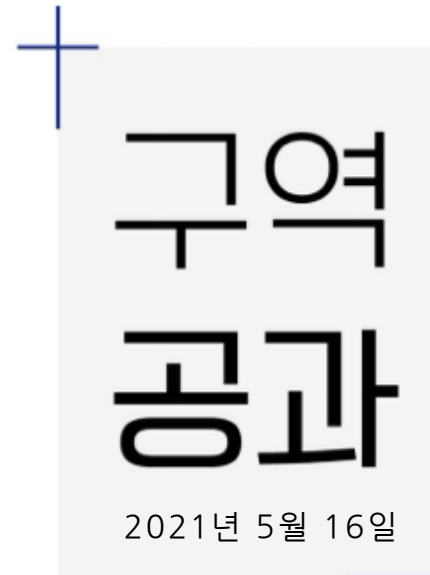
## 신앙

### 바이블로 시편

시편은 모세로부터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1천여 년 동안 여러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150편의 시를 다섯 권으로 편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다양한 노래시들의 모음집이다.

각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느꼈으며, 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를 아름답고 영감된 시로 노래한다.



## 생명의 빛을 얻으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생명의 빛을 얻으라

요한복음 8장 7-12절 (27장, 436장)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할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빛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7-12절).

성경은 간음죄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레20:10-21, 신22:22-24).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신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으로 깨닫고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을 죽이라 하면 사랑이 없는 자, 로마의 법을 어긴 자로 고발하고 여인을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하기 위해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 없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십니다. 무슨 글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율법의 근본정신을 쓰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눅10:25-28). 하나님이 저주받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은혜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지은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다시 살도록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십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은 계속해서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십니다.

간음죄는 첫째,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여자나 남자와 관계를 맺거나 동성애를 하는 육신의 간음이 있습니다. 둘째, 마음에 음욕을 품는 마음의 간음이 있습니다(마5:27, 28). 셋째,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글을 쓰실 때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간음죄가 있음을 깨닫고 양심에 가책을 받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롬3:10). 오직 예수님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데 예수님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가르쳐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하심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저주 가운데 놓인 자들이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요3:16, 17).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죄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신을 정죄하고 남을 정죄하면서 죽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에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본래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구원을 완성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회개만 하면 주의 피로 씻음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찾지 못하고 정죄만하면 회개할 수 없고 죄의 짐에 매여서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정죄는 스스로 죄에 매여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진짜 회개는 죄를 용서해주시는 예수님을 붙들 때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의 피로 씻어 달라고 진심으로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하면 대신해서 회개할 때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만 하면 정죄하지 않고 씻어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쓸 때 힘주시고 빛으로 인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정죄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려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주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은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죄를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힘쓰면서 빛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